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강해 22)

성경말씀: 눅7:1-10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 완성 및 신약 시작,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 인간관계,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 공흘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 수용, 용서, 베풀, 열린 눈(6:37-42), 마음의 선한 보고: 주님의 두려움, 말씀, 천국 애착, 재림과 부활 소망, 나무는 열매로 안다. 언어, 성령의 열매, 이제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배경

평야에서(17) 백성이 듣는 데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감, 주님의 갈릴리 사역 본거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으뜸 도시.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주님은 이곳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마17:24; 막1:21-35; 요6:17, 59). ‘그분의 도시’(마4:12-16; 9:1; 막2:1). 이런 명예에도 불구하고 거기 거주민들의 대부분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불신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마11:20-24).

백부장과 그의 종(2), 지금 군대의 중대장(대위),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됨(마비병 마8:6) 세 부류의 사람들(유대인들의 장로들, 백부장, 예수님), <믿음이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장로들: 외적인 모습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병 고침을 부탁함(3),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 장로들이 부탁하러 갈 정도이면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

그들이 절박하게 간청함(4).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는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이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5).

1.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교도들은 잡신 우상 숭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한다.

행10:2의 고넬료: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2. 회당 건축: 포로생활 이후 등장, 나이가 들고 경건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세울 수 있었고 큰 마을에는 여러 개 회당이 있었다. 회당은 교회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였고(눅7:5) 천국의 열쇠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회당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만 460-480개의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 장로들의 문제: 이런 외적 치적, 업적을 거론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로 착각함

지금 식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 헌금, 사회봉사 헌금, 주차장 봉사, 조찬 기도회, 4대째 기독교 집안, 주중 대사, 교수, 대학원장 등이 예수님의 호의(천국)를 받기 위한 조건

성경은 이런 식의 사람의 외적 치적을 내세우는 것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것은 결만 보는 것이다. 영적인 일에서는 결만 보는 것이 눈 먼 것보다 더 나쁘다(요9:39-40). 하나님께 올 때는 우리의 내부를 하나님께 제시해야 한다.

백부장의 자기 인식(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사랑해서 가신다.

어찌 된 일인지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수고하지 말고 자기 집에 오지 말 것을 간청함(6).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이방인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에 위배됨(행10:28)

그러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됨,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은 아닌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증언을 한다: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자격이 없다. 말씀만 하옵소서”(6-7).

백부장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다(하나님 앞에서 진적으로 무가치).

외적 행위는 멋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

교만, 음행, 탐욕, 천박함(경박함), 게으름 등 겉으로는 안 나타나도 속에 내재된 것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흠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보다는 낫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 나를 모른다. 남의 것들만 크게 보는 위선자(41-42)

과거의 물 판별: 투명하면 좋은 물, 현미경이 나온 뒤 물을 보니 세균 투성이

우리가 그렇다. 겉으로는 그럴 듯한데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보면 죄 투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살인범들, “나도 그 상황에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들도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음행으로 보시는 분: “이런 분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사6:5, 내게 화가 있도다. 망하게 되었고도다.

그래서 과거의 청교도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죽을 때까지 자신의 더러운 모습 때문에 슬퍼하였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에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죄로 보는 극단에 빠져도 안 된다. 인생이 비참해진다.

그리스도인은 극단적인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여기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출구를 허락해 주신다(롬5:8).

세상의 지위로 보면 그는 예수님보다 훨씬 낮다: 로마의 백부장(갈릴리 목수), 식민지 지배자, 종속자 세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경의를 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들을 보았다(요3의 니고데모) 생명과 사망을 손에 쥐고 계신 분,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눅 4:12-32), 무슨 병이든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질병이든 죄병이든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1) 자기를 아는 것, (2)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를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마16:16), 베드로, 그분의 제자들, 에티오피아 내시, 바울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말로 표현하였다(7-8).

“가까이 계시든 멀리 있든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심지어 질병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였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기 바란다.

“구원, 재정, 결혼, 직장, 질병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받자.” 히4:15-16

예수님의 판단(7-10)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셨다(9). 기이히 여기셨다. “이런 믿음은 처음이다.”

예수님이 놀랄 정도면 굉장한 것이다. 우리도 해 보면 어떨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분이 놀란 일은 두 번 나옴(막6:6).

고향에서 말씀 선포(막6:1-6),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놀라며 이상히 여기심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해 드릴까? 불신 혹은 믿음

믿지 않음으로 그분을 놀라게 하는 일은 멸망의 길이다.

놀라신 이유

1. 이방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았다.
2. 직업: 식민지 지배자, 권력자, 예수님께 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
3. 재물: 회당을 지어줌, 부자가 구원받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움(눅 18:24-25). “그들은 재물을 신뢰한다.”
4. 믿음의 강도: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히11:1)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말씀으로 지으시고 유지하시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였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자: 모세(24-27)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가?(재물, 지위, 명예, 학식, 가정, 직분, 교회 봉사 등) 다른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것에 취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재림, 휴거, 부활, 심판자)